

# 가계 빚 지난해 122조 폭증

### 4분기말 1207조로 사상 최대... 주택담보대출 크게 증가한 영향

지난해 가계 빚이 1200조원을 돌파했다. 1년새 122조원을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5년 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가계신용은 120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7000억원(11.2%) 증가했다.

한 해 동안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기준 증가 폭으로도 200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다. 3분기말(1165조 9000억원)에 비해서도 41조1000억원(3.5%) 늘어나 분기 기준 증가폭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와 백화점, 자동차 할부 등의 판매신용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1141조8000억원으로 3분기말 대비 39조4000억원 증가

했고, 전년 대비로는 116조8000억원 뛰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14조2000억원, 2분기 32조7000억원, 3분기 30조4000억원, 4분기 39조4000억원 씩 늘어나며 폭집을 불렀다.

유독 지난해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저금리 기조 속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아파트 분양 호조 등으로 2014년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분기보다 18조원 늘어난 40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36조1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안심전환대출채권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간 양도분 증가액(33조원)까지 더하면 사실상 66조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전년 증가액(36조7000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상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팀장은 "예금은행의 경우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담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3분기 6조3000억원에서 4분기 9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2조4000억원 늘어난 24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4조5000억원)과 기타대출(18조원) 증가폭이 늘어난 영향이다.

판매신용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위축됐던 소비가 3분기 이후 급증하면서 연중 5조원 늘어난 6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4분기 증가폭은 1조7000억원으로 3분기(3조39000억원)에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신용카드회사와 할부금융회사 등의 판매신용은 연중 4조9000억원 늘어난 6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고, 자동차회사 등의 판매신용은 1조원으로 전년 대비 보험세를 보였다. /인진수 기자

# 전북 1월 수출 지난해 대비 2.6% 감소

전라북도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6% 감소한 7억 3563만 달러에 그쳤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각각 -50.6%·-32.1%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베트남(-66.5%)으로 수출 감소폭이 컸다. 자동차 부품 수출 부진은 같은 제품의 1위 수출대상국인 미국(-17.0%)의 수출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북지역 수출 1~3위 국가

### 7억 3563만 달러에 그쳐 자동차·부품 감소 탓 무역수지는 4억달러대 회복

인 중국(-46.6%), 베트남(-54.0%), 미국(-27.6%)으로 크게 줄었다.

중국 수출은 합성수지(-23.6%), 농약(-48.0%) 등이 부진했다. 베트남은 자동차(-66.5%), 미국은 건설장비(-68.7%)가 큰 폭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에 벨기에 등지로의 선박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이 2.6%(7억 3563만 달러)에 그치며 선전했다.

김영준 전북지역본부장은 "2016년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감소해 근심을 더했다. 그러나 1월 전북지역의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2.607만 달러 증가한 4억 3470만 달러를 기록, 2015년 3월 이후 10개월 만에 4억 달러대를 회복했다. 특히 전체 17개 지자체 중 수출 증가율 상위 3위에 올랐을 정도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JB희망의 공부방' 제40호 개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4일 익산시 월성동에 위치한 '작은자매의 집'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40호' 사업지원에 따른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이정영 부행장, 양모 익산지역금융센터장, 강연식 익산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익산시청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 작은자매의집 원종훈 원장이 참석했다.

작은자매의집은 지적장애아동 50여명이 특수교육과 일상생활훈련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로, 노화된 건물을 수시로 기능보강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립된 학습공간과 기자재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습활동 이외에도 시설의 특성상 장애유형별로 언어 심리 등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고정형 공간 마련이 시급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전북은행은 활용도가 떨어졌던 공간을 정리한 후 책상, 의자, 책장 도서, LED전등 등으로 공부방을 꾸며 아동

### 익산시 월성동 작은자매의집에

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북은행 익산지점 직원들은 가구배치와 실내장식 등 공부방 조성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방문을 약속하였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공부방을 통해 아동들이 사회적 편견을 딛고 자립할 수 있는 큰 인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아동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영수 기자



## 만성법조타운 중흥S-클래스 분양

### 9개동 615가구... 내일 견본주택 개관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오는 2월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전주 만성지구에서 '만성법조타운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분양에 나선다.

'만성 법조타운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는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 도시개발구역 내 C2블록에 위치한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15층~20층 9개동, △전용 104㎡ 312가구 △전용 115㎡ 189가구 △전용 124㎡ 114가구 등 총 615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만성 법조타운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등이 이전하는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에 위치해 향후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며, 전주 만성지구에서 유일하게 대형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호소가치가 높다.

수변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인접하고, 50%이상의 조경면적을 갖춘 공원형 아파트로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중심상업지구와 가깝고 롯데백화점, 대학병원 등 생활권의 시설이 풍부하고, 전 가구 4Bay-4Room(일부 4.5Bay) 특화설계로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했다.

'만성 법조타운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는 단지 내 녹지비율이 높고, 주변 녹지도 많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황방산 기지제 저수지와 인접해 있어 조망이 우수하고, 수변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도 가까이 운동기구 및 산책로를 이용해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좋다.

조경면적이 50%이상을 차지하며,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라는 것도 큰 장점이다. 진경산수 석가산 특화조경이 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1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한편 '만성 법조타운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견본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25-3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8년 7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63-232-1500) /신광영 기자

## 전북은행, 정기예금 1000억 특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28일부터 3월31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15%를 제공하는 '대고객 감사 정기예금 특관'을 실시한다.

특관 한도는 총 1,000억원으로 한도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특관예금의 가입금액은 개인은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일반법인은 300만원 이상 5억원 이내로 가입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부터 18개월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특관금리는 기본금리에 ISA 사전 가입 예약, 계좌이동 변경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0.10~0.3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며 전북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정영수 기자

## 전주롯데백, 코오롱 아웃도어 대전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코오롱스포츠 아웃도어 대전'을 오는 28일부터 3월3일까지 6층 이벤트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오롱스포츠 참고 대공개'와 빈폴아웃도어,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디스캐버리 등 유명 아웃도어 총 9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들 브랜드는 최대 60%세일 등 총 40여 억원 가량의 물량이 준비됐다.

코오롱 스포츠 사계절 대전은 남성 등장 윈드해비다운재킷 34만 8,000원, 방수 재킷 27만원, 카오링바지 10만5,000원, 여성 경량다운재킷 21만원, 슬림경량다운재킷11만4,000원, 폴리스재킷13만2,000원에 판매하고 당일 이벤트를 내 아웃도어 20/40만원 이상 구매시 롯데상품권1/2만원 증정행사(일100명만)도 진행한다.

이외 블랙야크 T셔츠 3만8,000원~7만 9,000원, 밀레 항공점퍼 9만9,000원, 머털 바티박이10만4,000원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신광영 기자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추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조금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 지속적인 투자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올해는 5억원이 책정됐다.

지원분야는 신제품 개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기계장비 구축, 판로 및 정보화 지원 등이며, 분야당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9~10개소씩 마을기업 2, 일반 고도화사업 6, 신제품개발사업 2)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고도화사업 지원 마을기업 총 상위 2개소에는 추가 3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한편 전북은 지난해까지 99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해 1,069개의 일자리와 95억의 소득을 창출했다. /신광영 기자

###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걸을 지켜드리는데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1588-4477

www.jbbank.co.kr